“국보 원각사지석탑, 10층 아닌 13층”

남동신 교수, 國博〈미술자료〉 100집서 주장

1902년 조사한 세키노 타다시 “3중기단 위 10층 탑파” 발표
10층 공식화… 後 다층설 변화

아사미 발견한 ‘원각사비명’서 ‘13층’으로 조성됐음이 확인돼
고유섭 등 조선학자 13층 고수

1962년 국보 지정서 10층 의결
“10층설, 日학자 조사연구 오류 창건 기록인 13층으로 회복해야“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국보 서울 원각사지10층석탑은 마지막 호불(護佛) 군주였던 세조가 조성한 최후의 도성 내 불탑이다. 문화재청의 문화유산포털에는 원각사지10층석탑의 구성에 대해 “탑을 받쳐주는 기단(基壇)은 3단으로 돼 있고, 탑신부(塔身部)는 10층으로 이뤄져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탑의 10층설은 일본 학자의 오류이며, 창건 기록인 13층으로 명칭이 수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남동신 서울대 국사학과 교수는 최근 발간된 국립중앙박물관 학술지 〈미술자료〉 제100집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남 교수에 따르면 숭유억불의 기조를 유지했던 조선의 수도인 한양에 유일하게 서 있는 원각사지석탑은 당시 유학자들에게는 ‘비미(非美, 아름답지 않음)’의 존재였으나 19세기 이후 조선에 온 서양인들에게는 한양의 유일한 볼거리였다.

〈조선, 고요한 아침의 나라〉를 저술한 퍼시벌 로웰은 처음 원각사지석탑을 민가의 지붕 위로 올라가 촬영했으며, 영국의 유명 여류 여행가 이사벨라 버드 비숍은 4차례나 조선을 방문해 “원각사석탑이 원래 13층이었는데 제일 상층부 3개층이 임진왜란 당시 석탑 아래로 내려졌다”는 구전을 채록하기도 했다.



당시 조선인들에게 13층으로 인식됐던 원각사지석탑이 10층으로 바뀐 이유가 무엇일까. 남 교수는 도쿄제국대학 교수였던 일본 건축학자 세키노 타다시(關野 貞)의 영향이 크다고 봤다.

세키노는 당시 한국 정부의 초빙을 받아 1902년 7월부터 62일 동안 한국 건축을 최초로 조사했으며, 이듬해 9월 원각사지석탑에 대한 짧은 논고를 사진과 함께 발표했다. 그는 발표를 통해 13층설을 속칭이라 치부하고 대신 “3중의 기단위에 서 있는 10층의 탑파”라는 10층설을 최초로 제기했다.

세키노의 가장 큰 문제는 ‘13층’을 확인할 수 있는 문헌이 발견됐음에도 이에 대한 반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조선에서 법관으로 활동한 아사미 린타로(淺見倫太郞)는 1909년 무렵 〈속동문선〉을 열람하던 중 마지막 권에 실린 김수온 찬술 ‘대원각사비명’을 발견했다. 아사미의 발견으로 그때까지 판독 불가였던 원각사비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비문에는 ‘건솔도파 십유삼층(建率覩婆 十有三層)’이라고 기록돼 원각사지석탑이 본래 13층으로 조성됐음이 증명됐다.

일제 치하 조선 학자들도 원각사지석탑을 13층으로 보았다. 이를 제일 먼저 제시한 학자가 이능화다. 그는 원각사 관련 자료를 취합해 연대순으로 정리하고 이를 통해 원각사지석탑이 13층이라고 봤다. 권상로, 최남선 같은 학자들도 한결같이 13층이라고 봤으며, 한국미술사학의 개척자인 고유섭 역시 13층설을 지지했다.

세키노도 잠시 13층설을 수용하나 1913년 동양미술 잡지 〈국화(國華)〉의 연재에서 ‘다층설’을 제기했다. 결국 그는 이 ‘다층설’을 끝까지 고수했다.

이에 대해 남 교수는 “세키노는 〈동국여지승람〉 〈대동금석서〉 〈원각사비〉에서 한결같이 원각사지석탑과 경천사지석탑을 13층으로 부르고 있음에도 이를 채택하지 않았다”면서 “다만, ‘13층설’을 속칭으로 치부하기에는 문헌적 근거가 너무 명백해 절충안으로 제시한 것이 ‘다층설’인데 이는 결국 미봉책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해방 직후인 1946년 미군의 도움으로 지상에 있던 상층부 3개 층을 다시 원래 자리로 옮기면서 연구자들은 건립 당시의 원상을 연구할 수 있게 됐다. 당시 학계에서는 다층설이 유지하면서도 한국 학자들을 중심으로 13층설 지지가 다수를 이루고 있었다.

하지만,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고 정부가 국보를 지정하며 원각사지석탑의 층수는 10층으로 공식화된다.

이에 대해 남 교수는 “1959년 경복궁에 방치돼 있던 경천사지석탑을 복원하며, 해체 직전의 탑을 조사했던 세키노의 1904년 보고서가 독보적인 학술적 지위를 갖게 됐다”고 분석했다.

당시 문화재 지정 조사를 참여했던 김원용 국립박물관 학예관이 세키노의 보고서 등에 의존했고, 이를 토대로 탑의 명칭이 확정됐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남 교수는 일본 학자의 조사 오류로 인해 잘못 붙여진 ‘원각사지10층석탑’의 명칭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원각사비’는 세조가 처음부터 13층탑으로서 원각사지석탑을 건립했음을 생생히 증언한다. 이례적으로 3층의 기단 위 10층의 탑신을 올린 형태로 조성했을 뿐”이라고 강조한 남 교수는 “세조가 원각사13층석탑을 건립한 의도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그 첫 단추는 원래 명칭을 회복하는 데 있다. 오류 위에 구축된 세키노의 10층설과 다층설을 이제 폐기하고 13층설을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양주 회암사지’ 선정

문화재위원회 13일 의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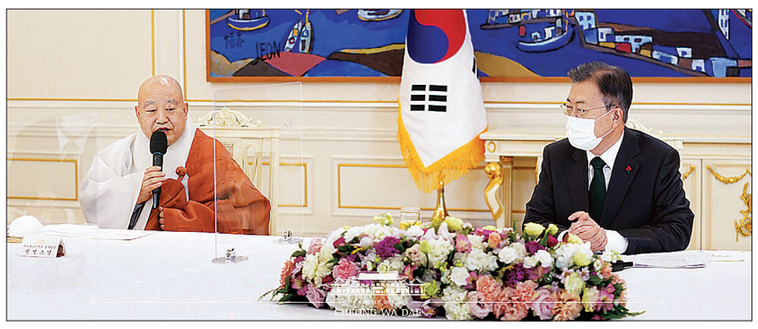
양주 회암사지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선정됐다.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은 1월 13일 열린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회의에서 ‘양주 회암사지’를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Tentative List)으로 선정할 것을 의결했다. 이는 2017년 1월 ‘화순 운주사 석불석탑군’을 신규 등록하고 2019년 1월 ‘가야고분군’을 확대 등록한 이후 약 3년 만의 잠정목록 등록이다.

‘양주 회암사지’는 1964년에 사적으로 지정돼 있으며 유산구역에는 ‘양주 회암사지 사리탑’ 등 보물 4건을 포함한 총 9건의 지정문화재가 있다. ‘양주 회암사지’는 지난 2018년과 2020년 잠정목록 선정 심의에서 부결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심의에서는 유산의 성격, 명칭, 부도군과 사찰(유적) 구역 간의 연결성과 비교 연구 등에 대해 지속적이고 깊이 있는 연구를 문화재위원회가 권고하면서 ‘잠정목록’ 선정이 의결됐다.

신성민 기자



문 대통령, 국민 통합 위해 종교계 역할 당부

종지협 대표 오찬 간담회서 원행 스님 “국민 상생 노력”

문재인 대통령이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해 7대 종단 지도자들과 만나 “종교계가 국민통합을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1월 12일 청와대에서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대표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통합의 사회, 통합의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종교 지도자들께서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사진〉 문 대통령이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대표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한 것은 2019년 10월 21일 이후 2년 2개월 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종지협 대표들에게 “선거를 앞두고 국민통합을 위해 종교계가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참석자들을 대표해 인사말에 나선 종지협 대표의장 원행 스님은 “금년에 중요한 선거가 있다”며 “국민들이 분열되지 않도록, 상생할 수 있도록 종교 지도자 여러분들과 함께 힘을 합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종지협 대표의장인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해 류영모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이홍정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이용훈 한국천주교주교회의장, 나상호 원불교 교정원장, 손진우 성균관장, 송범두 천도교 교령, 이범창 한국민족종교협의회장, 천태종 총무원장 문덕 스님, 정순택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등이 참석했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신행 강화·글로벌 교육으로 건학이념 구현

동국대 건학위, 1월 12일 건학기본기관장 연석회의

학교법인 동국대(이사장 성우)가 학내 신행 강화와 글로벌 교육, 불교학 진흥을 통해 건학이념 구현에 나선다.

학교법인 동국대 건학위원회(위원장 돈관)는 1월 12일 본관 로터스홀에서 제2회 건학기본기관장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울캠퍼스 정각원·불교대학·불교학술원·경주캠퍼스 정각원·불교문화대학·불교사회문화연구원·의료원 일산병원 법당·경주병원 법당·산하학교 현황과 추진 사업 계획들이 발표됐다.

서울캠퍼스 정각원은 동국인 신행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현재 운영되는 주중 교직원 법회를 ‘제2건학·불교중흥을 위한 교직원 법회’로 강화하고 가족과 함께 하는 ‘주말 자율신행프로그램’을 운영키로 했다.

서울캠퍼스 불교대학은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한 글로벌 교육을 추진키로 했다. 황순일 불교대학장의 발표에 따르면 불교대학은 대학원 내 영어트랙 불교학 과정을 개설하고 외국인 학생 유치 및 영미권 포교 기반을 만들 계획이다. 불교학술원은 디지털 대장경 조성 사업을 국책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33년까지 10년 동안 추진한다. 이밖에도 학교법인 동국대 산하 학교들은 고교학점제에 따른 선택과목 개설, 중학교 자유학년제를 이용해 건학이념을 구현에 나선다. 또 불제자 양성을 위한 포교전략도 수립할 계획이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대만 자제공덕회 한국지부, 종교단체 등록

국내 활동 10년 만에 설립 “자비희사 정신 알리겠다”

대만 자제공덕회 한국지부가 종교단체로 정식 등록 절차를 마치고 보다 적극적인 활동에 나선다.

조건 없는 나눔과 봉사를 통해 자비희사를 실천하고 있는 대만 자제공덕회가 2021년 12월 20일 한국에서 비영리법인 종교단체 ‘대만불교자제종 자제공덕회 한국지부’(지부장 박동섭)를 공식 출범했다. 한국에서 묵묵히 자선활동을 펼쳐온 지 10년 만이다.

대만 자제공덕회 한국지부는 11년 전 대만에서 불교에 귀의, 증엄 스님의 제자가 된 박동섭 지부장이 한국에서 10년 전부터 활동을 전개 하면서 물꼬를 텄다. 2018년 한국에 첫 사무실이 개소되면서 자제공덕회의 한국 거점이 됐고 2019년에는 공식 홈페이지를 개설, 포교활동뿐 아니라 불자들의 소통 창구가 마련됐다. 이번 등록은 100여 명의 회원들이 힘을 모았기에 의미가 크다. 대만 자제공덕회 한국지부는 정식 단체로 성장해 활동 폭이 넓어진 만큼 앞으로 더욱 활발한 연계활동을 전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 지부장은 “실천불교를 목표로 한국사회에 증엄 스님의 자비희사 정신을 널리 알리겠다”며 “공식 활동이 가능해진 만큼 한국에서 대만불교 자제종을 알리고 포교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종교편향·불교왜곡 근절과
한국불교 자주권 수호를 위한
전국승려대회

불기2566(2022)년 1월 21일 금요일 오후2시
한국불교 총본산 조계사

전국승려대회 봉행위원회

